

# 유격수 김선빈 빈자리 컸다



‘유격수’가 타이거즈 왕조 재건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8일 넥센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KIA 김기태 감독이 김선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처럼 활짝 웃었다. “오늘 김선빈이 나온다”며 웃음을 보인 김 감독은 “긴장하지 말라고 했다.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안) 치흥이한테도 말 많이 해주라고 했다”고 김선빈의 선발 라인업 복귀를 알렸다. 지난 7월 30일 두산전이 김선빈의 마지막 출장 경기였다. 발목이 좋지 않아 몇 차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김선빈은 8월에는 아예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원래부터 발목이 좋지 않은 김선빈은 상무 복귀 중이었던 지난해에도 발목을 심하게 다쳐 김스 신세가 되기도 했다. 삿조각도 돌아다니고 있어 시즌이 끝난 뒤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무리해서 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현재는

공격+수비형 백업 없어 고전...시범은 계속 김선빈은 8일 2루타로 화끈한 복귀 신고식

조절해가면서 경기를 뛰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 타율 1위 질주를 하던 김선빈이 빠지면 서 울 틈 없이 돌아가던 KIA 타선에 빈틈이 생긴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수비에서의 김선빈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매서운 타격에 비해 설익은 수비의 최원준이 실수 연발로 애를 태웠다. 지난 1일에는 김주형을 유격수로 투입해 공격형 라인업을 구축하는 시도도 이뤄졌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의 구상과 달리 1회초 수비부터 유격수 자리에서 점수가 새어나가면서 반격을 해볼 틈도 없이 경기가 기울었다. 올 시즌 돌아온 김선빈이 공·수에서 성숙한 플레이를 하면서 KIA는 1위 행진에 힘을 얻었다. 유일한 단점이었다던 ‘똥공 트라우마’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난 김선빈은 송구의 정확성까지 더해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발돋움했다. 앞으로도 타이거즈 왕조 재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김선빈이 만 그를 대체할 백업 요원이 마땅치 않

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 시즌 유격수 자리에 섰던 강한울과 박찬호가 올 시즌 선수단 명단에 없다. 강한울이 최형우의 FA 보상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했고, 박찬호는 현역으로 입대를 했다. 두 사람이 빠지면서 새로운 백업 유격수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유격수 후보군은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김지성이라는 새 카드를 투입했지만 수비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그나마 전천후 수비수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고장혁은 올 시즌이 끝나면 군입대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시험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대주자 자원으로 넥센에서 영입한 외야수 유재신이 원래 지리인 내야수로 돌아가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유재신은 내야 훈련과 함께 퓨처스 리그에서 유격수로 출전하는 등 백업 자원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 김선빈의 활약과 부상에 웃고 윤 KIA의 ‘백업 유격수 만들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범호 “제발, 광주서 300홈런 치고싶다”

### 친정 상대 김세현 “라이브 피칭하는 기분”

#### 덕아웃 T 특특

▲제발 = 300홈런을 앞둔 이범호의 심정은 ‘제발’이었다. 이범호는 통산 298홈런에서 지난주를 시작했었다. “광주에서 (300홈런을) 치고 싶다”고 말했던 이범호

는 1일 안타 없이 몰라났고, 2일에는 우천 취소로 경기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3일 299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나 친정인 대전으로 건너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비로 한 경기를 쉬는 등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다. 8일 이범호는 “100호, 200호를 모두 대전에서 쳤던 것 같다. 하나 남았는데 광

주에서 치면 좋겠다. 제발. (프로 데뷔) 첫 홈런이 바로 광주였다. 최상덕 선배를 상대로 쳤는데, 광주에서 300홈런을 치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브 하는 그런 기분 = 익숙한 적들 앞에서도 무덤덤한 김세현이었다. 지난 7월 31일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김세현은 8일 옛 동료와 재회했다. 8·9일 넥센과의 홈경기가 치러지면서 친정을 상대로 등판을 준비하게 된 김세현, “긴장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반응과 달리 김세현은 “아무렇지도 않다. 라이브 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다”며 특별하지 않은

소감을 밝혔다. ▲분석은 많이 하는 것 같는데 = 나지완의 상승세를 바라는 스승 김기태 감독이다. 8일 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나지완의 후반기 초반 부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감독은 “분석은 많이 한 것 같더라. 후반기 초반에 좋지 못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삼진을 당하고 찬스 때 못 쳐서 부담됐을 것이다. 한화전 홈런을 계기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나지완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의 특별한 응원

### “김기태 감독님 함께 우승해요”

지난 2009년 가을,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경사가 났다. 양대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서 동반 우승을 일궈내며 축포를 터뜨렸다.



김기태 감독 최강희 감독

당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포로 1997년 (당시 해태 타이거즈) 이후 1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프로축구에선 전북 현대가 성남 일화화와 챔피언결정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해 창단 후 첫 우승을 거뒀다.

이후 전북과 KIA의 명암은 뚜렷이 갈렸다. 전북은 2011년, 2014년, 2015년 우승을 차지했지만, KIA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올해엔 이야기가 다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두 팀은 8년 만에 프로야구-프로축구 동반우승의 꿈을 꾸고 있다. KIA는 7일까지 65승 1무 35패로 2위 NCC다이노스에 5.5경기 차로 앞서며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전북은 15승 5무 5패 승점 50점으로 2위 수원 삼성을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고 있다. 2009년 전북에 첫 우승을 안겼던 최강희 감독은 KIA의 선전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최강희 감독은 “올 시즌 가끔 프로야구 KIA 경기 중계를 본다”며 “그동안 KIA의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우승을 하면 모기업에서 매우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KIA 김기태 감독님과 부임 후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며 “올해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무리를 잘해서 웃는 얼굴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구체적으로 “최형우를 프리에이전트(FA)시장에서 잘 영입한 것 같다”며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연합뉴스



‘허들의 볼트’는 금메달 오마르 맥레오드(자메이카·왼쪽)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 결선에서 13초0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가 9일 수원 안방으로 가 FA컵 첫 4강 진출을 노린다. 사진은 지난 5월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과의 16강전에서 조주영이 골을 넣고 기뻐하는 모습. <광주 FC 제공>

## 광주 FC 사상 첫 FA컵 4강 도전

### 오늘 수원과 8강전

프로축구 광주 FC가 사상 첫 FA컵 4강 진출을 노린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2017 KEB하나은행 FA컵 8강전을 치른다. 광주에는 창단 후 처음 뵈게 된 8강 무대다. 연세대와의 32강전에서 0-2로 뒤진 후 반 44분 추가골을 발판 삼아 극적인 4-2 승리를 거뒀고, 아산 무궁화와의 16강전에는 3-0으로 완승하며 창단 후 처음 8강 진출을 이뤘다. 이제 8강을 넘어 4강에 도전한다. 팀의 새 역사에 도전하는 이번 경기는 4일 만에 진행되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5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홈경기에서 ‘득점왕’ 조나탄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0-1로 패했다.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은 광주는 FA컵에서 앞선 패배를 갱아주겠다는 각오다. 남기일 감독은 이번 수원 원정에 그동안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체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남 감독은 “그동안 FA컵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동시에 경쟁력을 확인할 것”이라며 “최근 무더운 날씨와 땀뻑한 일정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주전 선수들에게는 휴식과 동시에 정규리그를 준비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에겐 갈 길 바쁜 한 주다. 수원은 광주와의 FA컵 8강전 이후 12일에는 FC 서울과 ‘슈퍼매치’를 치러야 한다. 마음 급한 수원 사냥을 위해 전반기 광주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조주영이 전면에서 선다. 조주영은 올 시즌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2골 2도움을 넘어 발전하고 있다. 또 아산과의 16강전에서 2골을 넣었던 그는 서울과 제주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골 맛을 보기도 했다. 여기에 탈장으로 쉬었던 맥킨이 재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두 사람의 호흡에 눈길도 간다. 패기의 광주가 수원을 상대로 설욕전에 성공하며, FA컵 4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